



복수초 화단이용과 재배기술

▲ 복수초의 홀꽃과 겹꽃



송 정 섭

농업연구원, 이학박사
(031-290-6203,
songjs@rda.go.kr)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National Horticultural Research
Institut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우리 산야에 자생하는 것 중 이른 봄 가장 먼저 피는 것을 들라하면 단연 복수초(*Adonis amurensis* REGEL. et RADDE)이다. 추위에 강해 겨울의 한북판인 2월에도 설악산에서 눈과 얼음을 뚫고 나올 정도이다. 반면에 여름 고온에는 무척 약해 햇볕이 많이 드는 곳에서는 6월 하순부터 지상부가 거의 말라죽는다. 복수초 꽃은 전형적인 향광성으로 해를 보는 방향으로 활짝 핀다.

속명의 *Adonis*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름다운 소년의 이름인데, 그의 피에 의해 꽃색이 염색되었다는 전설에서 유래되었다. 복수초의 꽃말은 동서양이 서로 다른데, 동양에서는 '영원한 행복', 서양에서는 '슬픈 추억'이다.

1. 생리생태 및 이용

복수초는 미나리아재비과에 속하며 전국의 산야에서 아직도 흔히 자생

한다. Adonis 속에는 세계적으로 약 20종이 분포하는데, 주로 아시아와 유럽의 고산지대에 햇볕이 어느 정도 드는 곳에 군락을 이루고 있다. 아시아원산인 종들은 약간 그늘진 곳에서 잘 자라며, 유럽종들은 완전 양지나 암석 틈 같은 곳에서 잘 자란다.

우리나라의 복수초는 산지의 밝은 숲이나 그 부근의 초원지대에 자생하는 여러해살이 풀이다. 초장이 10~30cm이고 개화기가 3~4월로 빠르며 지름 4~5cm의 황색 꽃이 핀다. 자생화 중 비교적 꽃이 크고 노란색으로 산야에 봄이 왔음을 가장 먼저 알려주기 때문에 인기가 많으며, 노란색은 황금을 상징하기 때문에 연초에 새해인사와 함께 잘 어울리는 꽃이다.

복수초는 추위에는 매우 강해 전국 어디서든지 노지에서 월동할 수 있지만 여름 더위에는 맥을 못춘다. 따라서 여름에 시원한 그늘이 지는 곳을 중심으로 화단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분화나 분경용으로도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분경을 만들 때 중요한 소재로 활용된다. 한편 뿌리를 포함한 모든 부분을 꽃이 필 때 채취하여 약용으로도 이용하는데 아도닌(Adonin)이라는 강심성 배당체를 함유하고 있어 강심, 이뇨, 정신쇠약증, 물집치료 등에 사용된다.

2. 재배기술

가. 묘 생산

5월에 종자를 채취하여 직파하면 20일 후 발아하고 5~6년 후에 개화한다. 발아적온은 20℃ 내외이고 광발아성 종자이므로 복토를 얇게 하거나 종자를 파종 후 가볍게 눌러주는 정도로 관리한다. 종자가 제대로 여물지 않았거나 너무 성숙되어 휴면에 들어갔거나 하면 발아가 극히 불량

하다. 따라서 제대로 수정된 종자들을 채취하되 너무 성숙하여 종피가 단단해지기 전에 뿌려야 한다. 종자는 염수선 같은 방법으로 충실한 것들을 잘 골라 뿌려야 발아율이 높다. 육묘 후 묘를 포트에 옮겨 심을 때는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복수초는 직근성으로 이식을 아주 싫어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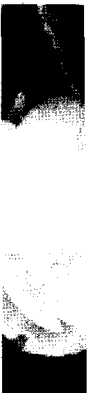
포기나누기는 3년마다 가을에 분갈이 할 때 한번씩 실시하는데 1포기에 눈 5~6개 정도씩 붙여 나눠주는 것이 좋으며 너무 세분하면 나중에 개화가 불량해진다.

나. 재배관리

자생지의 대부분은 낙엽활엽수림인데, 이들 활엽수는 봄철 성장기에 햇볕을 많이 들며, 성숙기에는 나뭇잎이 우거져 그늘과 지중습기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기온이 25℃이상 올라가는 6월경부터는 개체가 대부분 휴면에 들어가는데 이때 지온상승이 되지 않도록 풀로 덮어 주는 것이 좋다. 적정 재배용도는 보수력이 있고 배수가 잘 되며 부식질이 많은 사질양토이다.

화분에 심을 때에 주의하여야 할 것은 뿌리가 10cm 정도로 긴 수염뿌리이므로 비교적 화분이 크고 깊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이듬해 양질의 꽃을 피울 수 있다. 꽃이 피는 시기에는 양지바른 곳에서 관리하여야 꽃의 크기가 커지고 생육도 좋아지지만, 꽃이 지면 곧 바로 반그늘로 옮겨 재배하는 것이 생육에 좋다.

일반적으로 상품화되어 판매되는 것을 보면 작은 분에 뿌리가 꼭 차 있다. 그러므로 꽃이 지면 바로 6~7치의 큰 화분에 이식하여 긴 뿌리를 충분히 신장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6월경에 잎이나 줄기가 지게 되므로 별이 드는 곳에서 깃묵가루 등의 유기질비료를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준



다. 또한 작은 분에 있는 꽃봉오리는 꽃을 피우기 어려우므로 별을 충분히 쪼이고 습도가 유지되는 곳에서 손끝으로 살짝 비늘을 벗겨주면 개화한다.

다. 속성재배

복수초를 분화로 재배하는 경우, 10월경에 묘를 굴취하여 분에 정식한 다음 노지에서 관리하다가 1월 중순경 하우스에 입실 가온하면 20~25일 후에 개화된다. 개화기까지는 햇빛을 충분히 받도록 관리하고 개화 후에는 15~20℃의 반그늘에서 재배하는 것이 하고현상을 막을 수 있는 요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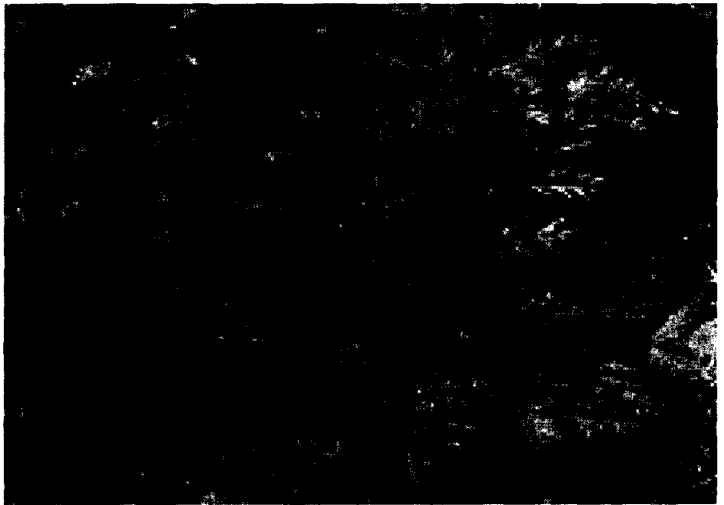
라. 시비 및 병충해 방제

10a당 퇴비 1,000kg, 깻묵 40~50kg을 사용한다. 분화재배 시에는 생장기인 4~6월에 4종 복합비료를 1,000~1,500배로 희석하여 월 3회 정도 엽면으로 시비하며 고품비료로 구비나 유기질 고품비료 등을 15cm분에 5g 내외씩 사용한다. 여름철에는 비료를

주지 않는다. 여름철 고온다습시 뿌리썩음병 발생이 심하므로 무균 및 배수가 잘되는 상토를 사용한다. 포기나누기 할 때는 뿌리 부분을 충분히 소독하여 가른다.



▲ 복수초의 만개 광경



▲ 복수초 잎과 열매

